



# 렌즈를 향해 다가오는 '유물의 힘'

구본창·김광섭·김수강·오상조·이재용·조성연 작가 참여  
국립광주박물관, 11월 8일까지 온라인 전시...해설영상도

전시실에는 옛것이 지닌 독특한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이 가득하다. 시대를 초월해 오늘에 현현한 유물의 힘이다. 시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성의 논리마저 밀어낸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모든 것이 실타래처럼 얽혀버렸다. 속도와 계량 위주의 삶에 던지는 경고일까, 애써 무덤덤해보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상이다.

그럼에도 옛 유물과의 대화는 늘 잔잔한 감동과 감성을 선사한다. 유물은 늘 그렇듯 좁은 인식의 장을 열어젖힌다. 시간이 지닌 힘이랄까? 어쩌면 시간이 쌓여 저절로 배어나오는 고유한 미(美)일 것 같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박물관)이 마련한 '특별전 6인의 시선, 박물관 소장 명품 사진전'. 박물관 대표 소장품 24선을 6명 사진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전시다. 사진이라는 렌즈를 통해 다가오는 저편은 실물을 뛰어넘는 무한한 상상과 깊이를 준다.

현재 박물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시 휴관 중으로, 일반 관람은 집합금지 해제된 후 가능하다.

11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화산 대곡리 출토 팔주령, 담양 서봉사 나한상 등 박물관 상설전시실에서 오랫동안 관람객을 맞이해 온 대표 유물들을 만날 수 있다. 구본창·김광섭·김수강·오상조·이재용·조성연 작가는 저마다 피사체에 대한 해석이 남다른 작가들이다.

촬영 유물은 박물관이 추천한 유물 30선 가운데, 11월 5월 한 달간 관람객 투표를 거쳐 선정했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에게로 와서 꽃이 된 것'처럼, 선택된 유물들은 아름다움을 발한다. 작가들은 박물관을 방문해 수장고, 전시실, 야외에서 총 24선의 유물을 나름의 방식으로 촬영했다.

한국 예술사전을 세계적으로 알린 구본창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백자와 분청사기뿐 아니라 금동 관도와 철제 갑옷을 촬영한 작품을 선보인다. 2004년부터 국내외 박물관에 소장된 백자를 모티브로 한 '달항아리' 연작으로 한국의 사신과 문화재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이끌어낸 바 있다.

김광섭 작가는 그동안 문화기관에서 도록과 보고서 발간을 위한 촬영을 지속해왔다. 문화재의 정적인 모습을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촬영에서는 '대곡리 청동거울' 등 문화재 고유의 표정을 담은 작업을 펼쳤다.

김수강 작가는 고무인(Gum print) 작업을 매개로 사물의 질감 표현에 주목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도 대상의 본질에 다가가는 시선에 초점을 맞췄다. 오랜 세월을 견뎌 온 유물 본연의 모습을 담은 '담양 서봉사 출토 나한상'은 담담하면서도 깊이 있는 느낌을 선사한다.

전남과 전북에서 사람과 풍경을 50여 년 동안 기록해 온 오상조 작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대형 카메라와 대형 흑백 필름을 사용한 아날로그 방식은 그만의 독특한

한 시선과 아우라를 발한다. 이번 촬영에서는 최근 주목하고 있는 '돌의 형상'이라는 주제를 매개로, 자연광에서 바라본 유물의 모습을 조조화한다.

이재용 작가는 그동안 장노출 기법으로 시간의 변화를 담아내는 데 중점을 뒀다. 시각의 변화를 고리로 대상의 모습을 작가 특유의 방식으로 소환하는 방식이 특징적이다. 이번 '기억의 시선-정자정병'은 시간과 이미지가 예술적으로 결합한 작품이다.

조성연 작가는 화면 안에서 생동하거나 혹은 시들어가는 정물의 순간에 주목해 왔다. '식물성'이 진행되는 순간에 전작에 온 일련의 작업이 이번 촬영에서도 유감 없이 드러난다. 렌즈를 통해 문화재들은 피어나기도 시들어가기도 하는데, 다양한 색채와 순간이 보여주는 이색적인 조화가 눈길을 끈다.

전시 담당자인 김영희 학예연구사는 "이번 전시를 통해 그동안 진열장 안에서 만나 온 문화재가 지닌 다채로운 울과 고유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저마다 독특한 예술 세계를 열어왔던 6명 사진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열정과 노력도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물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해설 영상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누리집 (gwangju.museum.go.kr)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진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조성연 작 '새모양토기'



## 박진현의 문화카페

레오나르도 다카프리오, 토비 맥과이어, 브래드 피트, 마돈나...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할리우드의 '인싸'들이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인터넷 미술매체 '아트넷'(Artnet)이 선정하는 '10인의 셀러브리티 컬렉션 명단'에 등장하는 단골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유명세와 재력을 바탕으로 세계적 거장은 물론 신진 아티스트의 작품을 자주 구입한다. 이들 가운데 레오나르도 다카프리오와 브래드 피트는 미국 미술시장에서 주목하는 '큰손'들이다.

특히 다카프리오의 마이애미 아트바젤과 뉴욕 첼시 화랑가를 수시로 드나드는 '짤' 미술애호가다. 글로벌 화랑

록 처음에는 먼바치에서 그의 뒤를 따르다, 필요하면 작품 설명에 도움을 드리겠다"며 말을 건넸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 이미 그는 해박한 미술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해 RM이 다녀갔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후 공간은 예년 보다 관람객이 4배나 늘어나기도 했다.

실제로 국내 문화계에서 RM은 이화백의 열혈팬으로 유명하다. RM은 지난해 이후 개인전이 열린 프랑스 퐁피두센터 메츠(분관)를 가려다 이름이 헛갈려 파리 퐁피두센터로 갔을 정도다.

RM의 '미술관 투어'는 현재 진행 중이다. 최근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인

## RM이 미술관을 자주 찾는 까닭은

으로 꼽히는 가고시안 갤러리가 VIP로 대우하는 그는 야구모자를 깊게 눌러쓰거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미술관이나 경매시장에 깜짝 등장한다. 그의 절친인 영화 '스파이더맨'의 토비 맥과이어 역시 '친구 따라 강남 간' 케이스. 수년 전 뉴욕 최대 아트페어인 아모리소 등에 출몰해 LA에서 활동하는 일본작가 카즈 오시로의 작품을 구매해 화제를 모았다.

"잘 보고 갑니다. 선생님. 저는 '바람'을 좋아합니다."

지난해 6월 BTS 랩몬스터 RM(본명 김남준·26)이 부산미술관 이우환 공간을 관람한 후 방명록에 남긴 문구다. 당시 부산 팬 미팅 공연을 앞두고 매니저 한 명과 조용히 이우환 공간을 찾은 RM은 미술관 관계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전시장을 둘러 보며 거장의 '바람 시리즈'를 감상했다. 미술관의 수석큐레이터는 매스컴과의 인터뷰에서 "작품 감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울이중인 그는 자신의 생일인 9월12일을 맞아 "미술책 읽는 문화가 확산하고 청소년들이 예술 감수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립현대미술관측에 1억원을 기부했다. 이후 원금은 다음달부터 전국 공공도서관 400곳에 기증될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도록 등 총 4000권의 도서 구입비로 사용된다. 특히 올해 그는 바쁜 스케줄에도 국립현대미술관, 갤러리, 아트페어 등을 방문하며 SNS에 인증샷을 올렸다. 이후 그가 다녀간 전시는 핫이슈로 떠오르며 팬들의 발길도 북적이는 등 'RM 효과'를 낳고 있다.

이처럼 RM의 전시장 나들이는 코로나로 침체된 미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반갑기 그지없다. 모쪼록 그의 선한 영향력이 팬들을 넘어 얼어붙은 미술계를 녹이는 '해피 바이러스'가 되길 바란다. 더불어 지역 명사들의 예술사랑도 릴레이처럼 이어졌으면 좋겠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 광주 동구 '오감만족 풍류산책'·'목포 개항장 시간여행' 등 문화재청, 내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광주·전남 26선 선정

문화재청 2021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 광주 동구 생생문화재 '오감만족 풍류산책', 목포의 '목포 개항장 시간여행' 등 광주·전남에서 26선이 선정됐다.

광주에서는 '문화재를 새롭게, 해현경장', '광주 동구 생생문화재-오감만족풍류산책', '서창 들녘에 부는 바람', '신나는 꼬싸눔놀이로 고고고', '무등의 의

병장을 만나는 시간-김덕령장군과함께놀자III'가 뽑혔다.

전남에서는 목포 '목포 명물 육단이! 잔치집가다!', '목포 개항장 시간여행', 여수 '승리의 바다 백성의 바다', '사랑의 원자탄, 그 너머에는', 순천 '선교사와 함께하는 근대문화유산 나들이·임진왜란의 역사 동아시아 평화의 시대', 나주 '조선의 도시로 가져-달빛

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 광양 '오감만족 광양 김 여행', '성(城)돌 사이에 피어난 현호색', 곡성 '내가 만난 첫 번째 문화재', 고흥 '홍양수군 탐험대-홍양길에서 충절을 배우다', 보성 '문화재 노래하다, 보성여관', 강진 '백운동 원림에서 풍류를 즐겨보이 어땀한가!', 해남 '문화재! 우리들의 놀이터', 영암 'Back to the 문화명촌', 영광 '신나고 흥미로운 신흥문화학교', 장성 '하늘감동 임동실한 청개구리', 완도 '가리보 500년, 조선수군과 노닐다', 진도 '삼시세끼 농악마실', 담양 '문화재와 함께하는 의병로드투어·생태도사탐양-문화재와 소통하다' 등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국립남도국악원, 18일 '민요이야기' 온라인 공연

국립남도국악원이 금요국악공감 '아리수가 들려주는 민요이야기'를 온라인으로 선보인다. 공연은 오는 18일 오후 7시 국립남도국악원 유튜브 채널에서 만날 수 있다. 공연의 주제는 '돌고 돌아온 노래'로 '서우제소리', '이어도의 노래', '너영나영', '홍타령', '경기잡가' 등 12곡의 다양한 민요를 들려준다.

2005년 창단된 아리수는 토속민요 발굴

과 보급에 앞장섰던 민요연구회의 맥을 잇는 단체다. 아리수는 아리(아리랑)와 수(나무)를 합쳐 아리랑나무를 뜻하며, '아리랑을 뿌리 삼아 한국음악을 꽃피우는 나무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연 관람에 참여한 관객들의 인스타그램 인증샷 및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남긴 분들 중 추첨을 통해 15명에게 치킨쿠폰을 제공한다. 문의 061-540-4033. /전은재 기자 ej6621@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일요일 정상 영업**